

메아푸드의 사회공헌 활동-

맛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주)메아푸드의 점심시간은 조금 특별하다. 한 명의 직원도 절대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입맛에 맞지 않거나 식욕이 없으면 밥 한 숟가락, 반찬 한 점 남길 만도 하지만 직원들의 그릇은 늘 깨끗이 비워진다. 이유는 바로 점심값을 아껴 이웃을 돕는 메아푸드의 사회공헌 캠페인 때문이다.

맛있게 먹고 이웃도 돕고

(주)메아푸드는 '가치 있는 식생활문화 창조'라는 창업 이념 아래 국내 최고의 패밀리레스토랑, 항공사 기내식, 5성급 호텔 등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육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술혁신형 벤처인증 기업이다.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업 특성에 맞춰 사회공헌도 메아푸드만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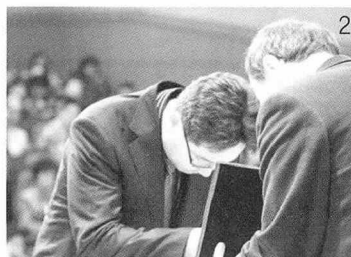
실제로 전 직원은 음식을 남기지 않고 아껴먹기 운동을 통하여 점심값을 절약, 매일 1,000원씩 적립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 산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전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껴진 점심값으로 모아진 작은 정성은 대한적십자 협회를 비롯한 사회복지 단체에 기부되어 수해복구 지원금, 저소득 주민 장제비용, 독거노인 식생활 지원, 사회봉사활동지원,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에 지원되고 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지원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푸드뱅크 후원을 통하여 음식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푸드뱅크 후원은 회사의 특성을 살려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제품을 정성껏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업무를 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행복한 경험이 되고 있다.

말기암환자의 편안한 여정을 위한 후원

최근 메아푸드는 '더불어 사는 사회실현'의 실천 방법에 한 가지를 추가하였다. 기존에 행해온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 올 2007년 1월말부터는 말기암환자를 위한 독립형 호스피스 무료 시설인 '성모꽃마을'을 후원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호스피스 관련법이 없어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종교 단체를 비롯한 각 단체의 성금, 성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메아푸드는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어려운 이웃들의 편안한 여정을 위하여 성금 지원 및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해내갈 계획이다.

작은 정성도 모이면 커진다. (주)메아푸드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작은 정성을 모아 우리 이웃을 돕고자 한다. 오늘도 메아푸드의 전 직원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맛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1. 대한적십자 협회 물품 기증
- 2. 푸드뱅크 감사패 수여
- 3. 푸드뱅크 식품나눔행사전경